

'93 모스크바 에어쇼를 다녀와서...

모스크바 에어쇼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스크바 시내의 Expocenter와 Zhukovsky 비행장에서 있었다.

이 쇼에서는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구소련의 항공 장비나 부품들을 일반에 공개하였고, 그들의 첨단 기술을 외부에 선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번 에어쇼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매 2년마다 출수해에 에어쇼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전에는 공개하기를 꺼려하던 장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Expocenter에는 3개의 대형 건물내에 500여 종의 전시품들을 전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이외의 나라들에서 참여한 회사들이 약 200여종을 전시하였고 서방 회사들도 90여종을 전시하였다.

이들 전시품들은 대략 항공기 엔진 분야, 우주 항공 관련 분야 및 상용 항공기 분야 등 항공기와 관련된 각종 부품들과 소재들이 소개되었다.

전시회에 참가한 러시아의 주요 연구소들을 보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해온 Miass Makeyev 개발국, 상용위성의 발사와 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산하 우주항공 부대, 과학 위성 연구소인 Inters-tate Vympel 연구소, 그리고 Star Wars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그들의 첨단 항공 기술을 소개 하였다.

외국 회사들로는 항공기 엔진 및 주요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Aerospa-tiale, Pratt & Whitney Rolls-Royce, Teledyne Co-ntinental Motors, Rockwell International등이 참 가하여 자사 제품을 전시/소개하였다.

이 전시회는 과거에 비해 많은 외국 회사들이 참여하였고 전시품을 소개하는 exhibitor들도 많이 파견하였는데 특히 프랑스에서 적극 참 여하여 총 31명의 exhibitor들을 파견하였다.

그 다음이 미국으로 총 24명을 파견하였고, 독일이 18명, 네덜란드가 15명을 이 전시회에 exhibitor로 파견하여 서방 국가들이 모스크바 에어쇼를 점점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 참가자들은 모스크바 에어쇼가 그동안 많이 향상되어 이제는 어느 국제 에어쇼에도 뒤지지 않는 질적으로 개선된 에어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방의 한

Aerospace 집행위원은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베를린 에어쇼 보다 오히려 모스크바 에어쇼 참여를 더 선호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에어쇼는 9월 4~5일 양일간에 Zhu-kovsky 비행장에서 있었다. 이 비행장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약 45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비행장으로 5,500m의 활주로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2백만 m²나 되는 곳이다.

여기는 旧소련이 항공기들을 개발하여 시험 비행을 하던 곳으로 그동안 수많은 항공기들이 비밀리에 시험되었고 현재도 이곳에는 비행 연구소가 운용되고 있다.

에어쇼에서는 광활한 비행기지 사방에 수많은 종류의 항공기들을 전시하였는데, 수송기, 폭격기 및 상용 여객기 등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서구의 항공장비를 설치하고 Pratt & Whitney사의 PW2037 엔진을 장착한 Ilyushin의 Il-90MO가 선보였고, Perm 설계국에서 설계한 PS-90A 엔진을 사용하는 Il-96-300도 전시되었 다.

폭격기로는 과거 미소간의 전략무기 제한협 정(SALT II)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던 Tupolev의 Tu-22M3 Backfire와 대형 장거리 전략 폭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코브라 기동'으로 화제를 모은 Su-27 (사진은 파리 에어쇼 전시 모습)

격기인 Tu-95 Bear, 그리고 저고도에서 천음속 침투와 60,000ft 고도에서 마하 2정도의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유도탄 탑재 가변익 전략 폭격기인 Tu-160 Blackjack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미국의 디스커버리호와 형태가 유사한 우주왕복선과 Myasishchev 설계국에서 개발한 우주선 수송을 위한 Atlant라는 수송기도 전시되어 있었다.

이번 에어쇼에 첫선을 보인 외국 항공 기로는 Hawker 800과 1000, Dassault사의 Falcon 2000등을 들수 있으며 동구권에서는 체코가 Aero L-160 쌍발 터보프롭 수송기를, 폴란드가 WSK Soko1 헬기를 소개하였다.

에어쇼가 있었던 9월 4~5일 간에 Zhukovsky 비행장에 군용 전투기들은 전시되지 않아 참관자들을 실망시켰으나, 그대신 러시아 공군은 MiG-29, Su-25, Su-27 등을 에어쇼에서 단독 또는 편대 비행을 통해 그 전투기들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특히 89년 파리 에어쇼에서 자유진영에 첫선을 보였으며 시범비행에서 '코브라 기동'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Su-27이 이번 에어쇼에서도 관람석 상공을 비행하다가 속도를

대폭 감소시키면서 기수는 하늘로, 꼬리부분은 지상을 향한 수직자세를 취해 공중에 정지한 듯한 자세를 취하더니 서서히 기수를 내리기 시작하여 천천히 하강하다가 급강하 자세로 증속한뒤 nose up하여 수평비행 상태로 비행해 나가는 코브라 기동을 실시하여 에어쇼 관람석을 가득 메운 참관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특별히 이번 에어쇼 행사의 일환으로 MiG 전투기 조립공장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 공장은 모스크바시에 소재한 항공기 조립공장으로 이번에 공개한 조립라인은 MiG-29가 조립되는 하나 하나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과거에 공개를 꺼려하던 무기들을 과감히 공개하여 외국에 판매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이번 에어쇼를 통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

이 글은 國科研 장대봉 선임연구원이 '93 모스크바 에어쇼를 직접 다녀와서 소감을 적은 탐방기입니다 — 편집자 주 —